

‘챔피언 트로피’ 걸고… kt와 KCC의 불꽃튀는 신경전

2023~2024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미디어데이

허씨 형제, 서로 4-0 예상하며 ‘집안싸움’ 예고
양팀 선수, 팬미팅·해외 여행 우승 공약도 던져



2023~2024시즌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수원 kt소닉붐과 부산 KCC가 나란히 챔피언 등극을 자신했다.

KBL은 25일 서울시 강남구 KBL센터에서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미디어데이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송영진 kt 감독과 kt 허훈, 문성근, 전창진 KCC 감독과 KCC 허웅, 송교창 등이 참석했다.

송영진 감독은 “선수 시절 함께한 전창진 감독님과 챔피언전에 와서 영광스럽다”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올라온 만큼 챔피언에 오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다. 이에 맞선 전창진 KCC 감독은 “KCC는 9개 구단의 시기와 질투를 받을 만큼 과감한 투자로 좋은 팀을 만들었다. 농구 팬을 위해 KCC가 우승해야 하고, 우승할 거라고 믿는다”고 자신했다.

정규리그를 3위로 마친 kt는 6강 플레이오프(PO)에서 울산 현대모비스를, 4강 PO에서 창원 LG를 차례로 꺾고 17년 만에 챔피언전에 올랐다.



25일 서울시 강남구 KBL센터에서 열린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미디어데이에서 kt 허훈(왼쪽부터), 문성근, 송영진 감독과 KCC 전창진 감독, 허웅, 송교창이 우승트로피를 배경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번 시즌 프로농구계를 평정한 패리스 베스, 허훈, 허윤기, 문성근에 신예 문정현의 활약이 돋보였다.

허웅, 라건아, 송교창, 최준용, 이승현으로 이어지는 국가대표 라인업을 구축해 ‘슈퍼팀’으로 불린 KCC는 정규리그에서 5위에 그쳤지만, 서울 SK와 원주 DB를 꺾어 내리고 13년 만에 챔피언전에 진출했다.

두 팀은 27일 수원 kt소닉붐아레나에서 7전 4승제로 열리는 챔피언결정전 1차전에서 격돌한다.

이날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kt의 허훈과 문성근, KCC의

허웅과 송교창은 모두 우승을 자신했다.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두 아들이자 리그 최고의 스타인 형 허웅과 동생 허훈은 나란히 4-0 승부를 예상했다.

허웅이 먼저 “부산에서 꼭 우승을 결정짓고 싶다”며 “최대 6차전까지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훈은 “생애 첫 챔피언전인 만큼 우승에 대한 간절함이 크다. 부산이든 수원이든 우승만 하면 좋을 것 같다”며 “KCC에 단 한 번도 지기 싫다”며 4차전에서 시리즈를

끝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4년 연속 챔피언전에 나서는 문성근은 양손을 들어 손가락 7개를 폈다. 문성근은 “7차전이 열리는 5월 9일은 내 생일이다. 강팀 KCC를 물고 늘어져서 꼭 생일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다”며 ‘셀프 생일 선물’을 계획했다.

사기가 최고조에 달한 양 팀 선수들은 우승 공약도 화근했다. 문성근은 “수원에 유명한 갈비집이 있다. 팬들과 식사하겠다”고 말한 뒤 함께 식사할 팬 인원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팬분들과 함께하겠다”며 답변을 피한 뒤 웃었다.

허웅은 팬미팅과 해외여행을 계획했다.

“서울이나 부산에서 큰 공간을 대관해 팬미팅을 하겠다”고 한 허웅은 한 술 더 떠 “선수들과 팬이 함께 동남아시아로 할링 여행을 떠나겠다. 농구에 진심인 KCC이기 때문에 단장님이 흔쾌히 수락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약을 내 걸었다.

각자 우승을 자신했던 만큼 양 팀은 챔피언결정전 최우수 선수상(MVP)도 자기 팀 에이스가 받을 거라고 장담했다.

송교창은 먼저 “6강 PO와 4강 PO에서 보냈듯이, 라건아가 정말 무서운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챔피언전에서도 그대로 보여준다면 압도적으로 라건아가 MVP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허훈은 “kt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패리스 베스가 MVP를 충분히 받을 거다. 우리는 ‘베스볼’이라고 받아줬다.”

정민수 기자

‘활활’ 불타오르는 성화… 도장애인체육대회 ‘스타트’

파주시 임진각에서 개막식 개최
31개 시·군서 4942명 선수 출전
27일까지 지역 명예 걸고 ‘열전’



25일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 개회식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종목단체기가 입장하고 있다.

사진=육지훈 기자

‘아름다운 도전, 감동가득 파주, 하나되는 경기’

제14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4 파주가 25일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린 개회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사흘간 열전을 시작했다.

31개 시·군에서 4942명(선수 2262명, 보조자 및 임원 2680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게이트볼,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론볼,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역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e-스포츠 등 17개 종목에 걸쳐 신체·시각·지적·청각·뇌병변 등 5개 장애유형으로 나뉜 시·군 대항전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30분 시작된 개회식 식전 행사에서는 경기출연회사의 ‘평화의 춤’ 공연에 이어 파주시립예술단과 파주월드오케스트라의 ‘평화의 수호’ 공연, 파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평화의 노래’ 공연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어진 공식 행사에서는 경기체전 홍보영상이 상영된 뒤 1군단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대회 표지판, 태극기, 대회기, 경기도

장애인체육회기, 종목기가 입장했다.

시·군 선수단은 내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지인 가평군을 시작으로 가나순으로 입장했고 개최지 파주시 선수단이 맨 마지막을 장식했다.

선수단 입장에서는 선수단을 대표해 31개 시·군 지자체장과 의회의장 등이 시·군 파켓, 시·군기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승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대회기가 영상으로 게양됐고 김경일 파주시장의 환영사, 김동현 경기도지사의 영상 축전 대회사,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어 참가 선수를 대표해 윤운호(육상)·

강성민(수영·이상 파주시) 선수가 선수단을 대표해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개회식의 하이라이트인 성화는 이번 대회 최고령이자 시각장애 선수인 지동욱(파주시)과 그의 아내 손에 의해 행사장에 들어온 뒤 최종주자이자 점화자인 장애인 육상 국가대표 출신 이상익이 성화대에 점화되며 대회 개막을 알렸다.

공식 행사 뒤에는 DJ 시애나와 함께하는 화려한 멀티미디어 아트쇼가 펼쳐져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인기가수 류원정, 알리, 장민호가 차례로 무대에 올라 대회 개막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쳤다. 정민수 기자

‘씨름 왕자’ 박민교, 2연속 모래판 평정

(용인특례시청)

문경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 등극
결승전서 차민수 상대로 3-1 역전승



25일 열린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 한라장사(105kg급) 결정전(5판3선승제)에서 차민수(전남 영암군민속씨름단)를 3-1로 꺾고 우승한 박민교(용인특례시청)가 황소 트로피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씨름협회 제공

박민교(용인특례시청)가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문경장사씨름대회에서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박민교는 25일 경북 문경시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한라장사(105kg급) 결정전(5판3선승제)에서 차민수(전남 영암군민속씨름단)를 3-1로 꺾고 황소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이로써 박민교는 지난 달 열린 평창오대산전장사씨름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2관왕에 올랐고 지난 해 보은대회 우승까지 통산 세번째 한라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다.

16강전에서 박동환(부산갈매기씨름단)을 2-1로 꺾은 박민교는 8강에서 임수주(강원 영월군청)를 상대로 들배지기와 잡채기로 내리 두 판을 따내 2-0으로 승리했다.

4강에서 이효진(울산 울주군청)을 만난 박민교는 들배지기와 밀어치기로 승부를 결정지으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차민수를 만난 박민교는 첫째 판에 안다리를 허용해 기선을 빼앗겼지만 둘째 판에 들배지기로 차민수를 모래판에 눕히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기세가 오른 박민교는 셋째 판에 차민수의 앞무릎치기를 방어한 뒤 밀어치기로 역전에 성공했고 넷째 판에 들배지기를 성공시키며 짜릿한 역전 우승을 달성했다. 정민수 기자

kt·KCC, 나란히 EASL 출전권 확보

(프로농구)

KBL 챔피언 결과 따라 조 편성 결정
7전 4승제 경기… 27일 1차전 점프볼



올 시즌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에 오른 수원 kt소닉붐과 부산 KCC가 다음 시즌 동아시아 슈퍼리그(EASL)에 출전 챔피언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동아시아 슈퍼리그(EASL) 사무국은 25일 kt와 KCC가 2024~2025시즌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kt와 KCC는 KBL 2023~2024시즌 4강 플레이오프에서 각각 승리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했다.

KBL에선 우승팀과 준우승팀이 다음 시즌 EASL 출전권을 획득한다.

kt와 KCC의 7전 4승제 챔피언결정전은 오는 27일 1차전을 소화한다.

이 시리즈 결과에 따라 두 팀의 EASL 조 편성이 결정된다.

해리 케린스 EASL 최고경영자는 “지난 시즌 파이널 4에 진출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서울 SK와 안양 정관장은 한국 농구의 강함을 보여줬다”면서 “kt와 KCC도 KBL 팀이 아시아 최고의 팀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2025시즌 EASL에서 kt, KCC와 경쟁할 다른 나라 클럽은 타 리그의 플레이오프가 진행되면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정민수 기자

‘실업육상 허들 간판’ 김경태·류나희, 정상 향해 ‘비상’

(안산시청)

2024 여수 KTFL서 동반 우승 차지
백승호, 남자 5000m·계주 2관왕도



25일 전남 여수시 망마경기장에서 열린 2024 여수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실업육상 남녀 허들 간판’ 김경태와 류나희(이상 안산시청)가 2024 여수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나란히 우승을 차지했다.

김경태는 25일 전남 여수시 망마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부 110m 허들 결승에서 13초95로 김대희(제주시청·14초31)와 손우승(국군체육부대·14초45)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또 류나희는 여자부 100m 허들 결승에서 13초94를 기록하며 조수진(광주광역시청·14초20)과 송유진(경북 안동시청·14초32)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부 5000m 결승에서는 백승호(고양시청)가 14분34초48의 기록으로 박원빈(충북 충주시청·14분35초43)과 박종학(한국전력공

사·14분37초21)을 따돌리고 정상에 오른 뒤 남자부 6000m 계주에서도 전성진, 김진만, 김규태와 팀을 이뤄 고양시청이 16분09초77로 충주시청(16분10초38)과 경북 문경시청(16분13초30)을 누르고 우승하는 데 기여하며 2관왕에 등극했다.

이밖에 남자부 포환던지기에서는 김진주(성남시청)가 18m04를 던져 정일우(전남 여주시청·18m01)와 지현우(파주시청·17m78)를 꺾고 패권을 안았다.

한편 여자부 1600m 계주에서는 임하늘, 유수민, 한경민, 김초은이 이어 달린 김포시청이 3분54초67로 전북개발공사(3분53초88)와 전남 광양시청(3분54초43)에 이어 3위에 입상했다.

정민수 기자

